

16개국 원예생산자 순천시 '지속가능 생태도시' 논한다



16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정기총회가 오는 22일까지 순천에서 열린다. 지난 4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을 찾은 AIPH 집행부. <순천시 제공>

22일까지 '국제원예생산자협회' 회의...순천시 "‘식물의 힘’ 보인 정원박람회 세계에 알릴 것"

지속가능한 원예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AIPH) 회의가 순천에서 오는 22일까지 열린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8일간 '국제원예생산자협회 75회 정기총회'가 순천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6개국 75명이 참석한다. 박람회 조직위는 석 달 전부터 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이번 행사를 지원해왔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는 해마다 다른 도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 논의, 3개 분과 활동 성과 공유 등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박람회 가든쇼 심사단이 입국했으며, 16일에는 박람회 가든쇼를 치르고 심사를 했다.

17일에는 이사회 의회와 환영 만찬을 갖고, 18-20일에는 분야별 학술 행사를 연다.

참가국들은 이후 21일까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참관을 한 뒤 22일 순천을 떠날 예정이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정기총회는 '엑스포 컨퍼런스' '원예산업 컨퍼런스' '그린시티 컨퍼런스'로 나뉜다.

엑스포 컨퍼런스에서는 순천을 포함한 8개 도시가 박람회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여기서 울산과 태국 등 4개 도시는 신규 박람회 개최를 신청했다.

원예산업 컨퍼런스는 한국관광원예학술대회와 함께 '관광용 원예의 환경발자국'이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를 진행했다. 국내외 연사 6명이 참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의제로 내건 그린시티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연사 5명이 관련 발표를 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불타버린 세계를 식물의 힘으로 재건하기 위해 결성된 AIPH의 요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지속가능성'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그 중요한 증거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원박람회는 이달 현재 관람객 700만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 300개 지자체와 기관, 연구소가 도시의 표준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웅치올벼쌀' 종합가공지원센터 준공

연간 300t 생산...가공산업 확대 곡물 볶음기·쌀과자 기계 등 갖춰

농산물 지리적 표시(71호)에 등록된 '웅치올벼쌀'의 상품 경쟁력을 높일 가공 공장 및 종합가공지원센터가 지난 14일 준공했다.

보성군은 이날 웅치면 웅반리에서 '보성웅치올벼쌀 가공 공장·종합가공지원센터 준공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올벼쌀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보성웅치올벼쌀 가공 공장·종합가공지원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향토산업육성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보조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약 30억원이 들어갔다.

가공 공장은 부지 2975㎡(900평), 올벼쌀 건조 시설 397㎡, 찜 시설 155㎡, 종합가공지원센터는 부지 1015㎡, 건축물 344㎡의 규모로 준공됐다.

종합가공지원센터에는 가공실, 개발실, 포장실 등의 주요 시설이 들어섰다. 곡물 볶음기와 분쇄기, 쌀과자 기계 등 13종 14대의 장비를 갖췄다.

보성군은 보성웅치올벼쌀 '퍼핑' (뽕튀기 쌀 모양



김철우(오른쪽 첫번째) 보성군수가 지난 14일 열린 웅치올벼쌀 종합가공센터 준공식을 찾아 올벼쌀 제조 과정을 살피고 있다. <보성군 제공>

간식) 2종, 쌀과자 2종 등 상품화에 성공했다.

보성농협은 센터 건립을 계기로 웅치올벼쌀을 연간 300t 생산한다. 올벼쌀 누룽지·퍼핑·쌀과자 등의 원료로 사용해 가공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군과 보성농협은 대한민국 농산물 지리적 표시 71호 보성웅치올벼쌀에 대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역량을 강화하고 특허 등 지적 재산

권 확보, 가공제품 개발, 유통 판로 구축 등에 힘써 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보성웅치올벼쌀 농촌 융복합산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화자원 육성 및 산업 활성화에 더욱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공영민(왼쪽 세번째) 고흥군수 등 관계자들이 중국 산둥 2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 유자·김...농수특산물 중국 간다

군, 산둥 2곳과 1천만달러 협약

고흥의 유자와 김 등 지역 농수특산물이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산둥 푸룬 투자그룹·상하이 민허제상무유한공사와 각각 고흥 농수특산물 500만달러, 총 1000만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고흥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다양한 상품 발굴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산둥 푸룬 투자그룹은 중국 각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발굴해 라이브 커머

스 히트 상품으로 만들며 2022년 누적 매출액 18억 위안(한화 3200억원)을 돌파한 대형 라이브 커머스 기업이다.

상하이 민허제상무유한공사는 상하이 및 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100여 개 로컬마트에 유통하는 회사로 2022년 매출액 8200만 위안(한화 150억원)을 달성한 유통기업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거대하고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농어업인이 흘린 땀이 외면받지 않도록 고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여수시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선정

2027년까지 국비 등 95억 들여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에 선정됐다. 사업비로 국비 43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 사업은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과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13억

여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시는 국비 30억원, 시비 65억원 등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말까지 소라면 죽림지역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

소라면은 최근 인구유입 급증으로 2만 2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공공 체육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체육센터 건립으로 지역 내 균형 있는 공공 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추진된다.

망마경기장과 군자정의 시설 보수와 전남체육관의 냉난방 및 방충 장비가 교체되는 사업으로 노후한 체육시설 정비에 따라 시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김청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 K-POP 페스티벌' 음식 판매 사업자 모집

다음 달 20-21일 열리는 '3회 광양 K-POP (팝)페스티벌'에서 음식 공간을 운영할 사업자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광양시는 이 기간 주행사장인 광양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광양 K-POP 페스티벌'을 연다.

커피·음료, 닭꼬치, 햄버거 등 단품 음식을 판매할 사업자(10개 등)를 모집한다.

공고일(9월14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지

역 사업자(개인·단체·기관)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위생 교육과 건강진단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들간 입점 비용은 20만원으로, 공간 운영자에게는 가로 3m·세로 3m 천막과 식탁, 의자, 전기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70-4693-6706)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